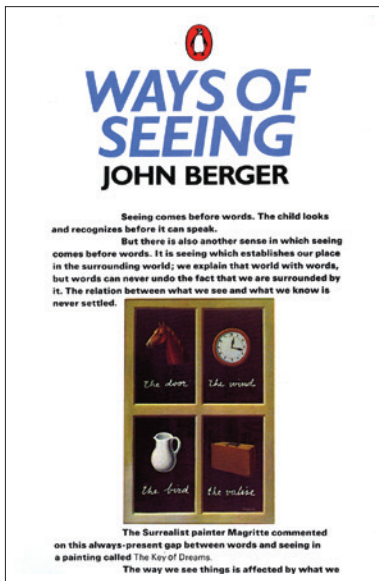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

글. 정유선 뉴미디어 아티스트/서울여대 초빙강의 교수



(좌) 1972년 출간된 존 버거의 <다른 방식으로 보기> 영문판 책 표지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과 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한글판에는 글은 빠져있다. (우) 2017년 작고한 존 버거의 생전 모습 / 출처 : 위키피디아

존 버거의 1972년에 출간된 <다른 방식으로 보기, Ways of Seeing>라는 책은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에게는 ‘고전’과도 같은 책이다. 특히 확고한 입시를 끝내고 미대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그림을 보는 방식과 시각에 대해 질문을 갖고 역으로 자신이 어떻게 그림에 다양한 시각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시각 예술 연구 입문서 중의 하나이다.

존 버거는 이 책에서 그림을 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계적인 유명 미술관의 렘브란트, 윌리엄 터너, 루벤스 등의 유화작품들을 그림의 외관의 아름다움에 경외의 눈빛으로 혹은 미술사의 양식대로 해석된 해설을 들으며 그림을 만들어낸 의도와 해석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해하려 노력한다. 하지만 존 버거는 신비롭게 포장된 예술의 해석하는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 작품의 안에 둘러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권력과 자본, 사회, 젠더의 문제를 작품의 해석으로 끌고 들어가 확장하며 해석해낸다.



<아놀로 브론치노 Agnolo Bronzino,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 Cupide and the Time (Allegory of Lust), 1540-45> / 출처 : 위키피디아

매너리즘 (르네상스 미술에서 바로크 미술로 이행하는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나타났던 과도기적인 미술 양식)의 대표작인 피렌체의 궁정화가 아놀로 브론치노가 그린 <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를 보자. 이 그림은 콘트라포스트의 자세와 인체를 극도로 길게 늘이는 과장되고 왜곡된 늘어진 신체 표현, 불명료한 구도, 양식적인 속임수와 기괴한 효과 등을 통해 긴장과 부조화, 불안한 신경증적인 감각을 전달하는 매너리즘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작품을 좀 더 들여다보자. 작품의 가운데에는 비너스가, 그녀의 왼쪽에는 큐피드가 있다. 비너스는 그녀의 왼손에 사과를 들고 있고, 오른쪽 손에는 화살을 들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올림포스 산에서 열린 펠레우스와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해 화가 난 전쟁의 여신 에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라는 내용이 적힌 황금사과를 던지자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나의 세 여신이 서로 이 사과를 갖기 위해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가 있다. 이 신화에 등장하는 사과가 바로 이 작품 속 비너스가 들고 있는 사과이다. 그녀가 들고 있는 화살은 사실 그녀의 왼쪽에 있는 큐피드의 화살이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장미꽃잎을 던지려는 웃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의 오른쪽 발은 가시에 찢려 있다. 어리석은 쾌락의 상징이다. 그런가 하면 그 아이의 뒤에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파충류의 몸통을 가진 속임의 상징이 있다. 아주 예쁜 얼굴을 하고 있는데 몸통은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뒤바뀐 괴물의 모습이다. 그녀의 한쪽 손에는 꿀이, 다른 쪽 손에는 독약이 있다. 이는 사랑의 양면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기만'을 나타낸다. 밝게 웃는 아이의 발밑에는 여자 가면도 그려져 있다. 큐피드의 뒤로는 신대륙에서 묻어온 성병, 매독을 의미하는 어두운 인물상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흔히 질투로도 해석된다. 그림의 윗부분에는 한 여인과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다. 왼쪽의 푸른 천을 덮고 있는 여인이 있고 오른쪽의 날개를 단 할아버지 신은 그녀의 몸에 감긴 푸른 천을 걷어내고 있다. 여기서 여인은 '진리'를 상징하고, 할아버지는 '시간'을 뜻한다. 이 작품의 주제는 음탕한 쾌락추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도덕적으로 훈계하는 그림인 것이다. 쾌락은 고통을 가져오고, 그것은 쉽게 망각될 것 같지만, 시간은 언제나 진실의 편이어서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며 그 숨은 상징과 알레고리를 찾는 대신, 존 버거는 그림에 표현된 여성의 묘사 방식을 통해 당시 사회의 여성관을 파악하고 사회상의 단면을 포착한다. 그 이전의 미술을 비평하는 방식과는 다른 정치적인 관점을 도입하여 그림을 보는 시각을 달리한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보자. 이 그림은 피렌체의 공작 ‘코시모 드 메디치’가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와 1세’에게 줄 선물로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션에 무릎을 꿇은 여인에게 입을 맞추는 큐피트와는 상관없이 여성의 나체는 앞을 향해 놓여있다. 그녀의 나체는 그림을 보고 있는 남자의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또한 여자의 태도는 수동적이며 에로틱하게 보인다. 그림의 소유주인 남성은 그림의 나체인 여성을 본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여성의 나체는 남자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성적 대상물이 되었다. 이 그림은 소유한 남성의 시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누드화는 당시의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응시와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존 버거는 ‘본다’는 행위가 그 자체로 권력 관계를 드러내고 이야기한다. 즉 본다는 말에는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의 구분이 포함되어있으며, 보는 사람의 내재된 권력이 그림에 숨겨져 있고, 이러한 전통적인 유화 그림 속에서 본다는 행위의 폭력성을 드러난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미술은 불평등한 것을 고상하게 보이게 하고 위계질서를 짜릿한 긴장감을 주는 것으로 만든다고 예술이 가지는 권위를 비판했다. 이렇게 그는 이전의 하나의 미술 감상법(Way of Seeing)에서 다양한 방식의 감상법(Ways of Seeing)으로의 이행을 제시했다.

글을 마치며, 현재 열리고 있는 전시 하나를 소개하고 자 한다. 존 버거가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보는 방법을 제시했다면 현재 대전 시립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뉴미디어 아트 전시 ‘어떻게 볼 것인가(WAYS OF SEEING)’는 관객들에게 전통적인 그림을 관람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그림을 관람하는 법을 제시한다. 이 전시는 ‘보다’라는 개념이 더 이상 단순한 시각적 도구로서의 틀 안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사운드 아트를 통해 듣는 행위를 통해 작품을 보고, 인터랙티브 아트로 직접 맞대어 조우하며 작품을 보며, 몰입형 아트로 눈을 매개로 한 단순한 시각적 체험이 아닌 전방위적인 몰입적 경험을 통해 작품을 보게 하는 다양한 방식의 감각적 체험의 ‘봄’을 제시한다.

또한 전시에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예술이자,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학제 간 융합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바라보는 주체와 비취지는 대상과의 관계,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화적, 사회적인 맥락을 차례로 짚어보고, 매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보기’라는 관점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섹션 1. ‘보다’에 ‘보기를 넘어’에서는 캐나다의 루이필립 롱도(Louis Philippe-Rondeau)와 포르투갈의 다비데 발룰라(Davide Balula)의 작품으로 구성되며 2차원의 화면을 넘어서 시각적 체험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평면적 구조의 해체를 시도한다.



로라 버클리 Laura Buckley <신기루 Fata Morgana (sculpture and video)> 2012 / 출처 : 사치 갤러리

섹션 2. ‘느끼다’의 ‘경험적 차원의 보기’에서는 인도의 실파 굽타(Shilpa Gupta), 터키의 레픽 아나돌(Refik Anadol), 아일랜드의 로라 버클리(Laura Buckley), 그리고 폴란드의 캐롤리나 할라텍(Karolina Halatek)이 참여하며 프로젝션 맵핑과 빛을 이용한 미디어적 접근으로 공간 전체를 장악하는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에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예술적 경험을 해볼 수 있다. 이 전시 작품 중 하나인 로라 버클리의 2012년도 작품 <신기루 Fata Morgana>는 기존의 수동적인 조정에 의해 변화하는 장난감 만화경에 영감을 받아 관람객이 작품 안에 들어가 무한 반복되는 시각적 환영을 직접 완성하도록 하는 작품이다. 작가가 구성한 비디오의 무빙 이미지와 관람객 스스로가 만드는 즉흥적 움직임이 겹쳐지고 편집된 사운드와 만나 새로운 설치 콜라주(collage)로 완성되는 작품이다.

섹션 3. ‘듣다 : 보기의 흐름’에서는 사운드를 주 매체로 미국의 크리스틴 선 킴(Christine Sun Kim)과 터키의 노스 비주얼스(NOS VISUALS), 그리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KAIST CT가 협업한 작품들을 통해 소리가 공간을 조각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본다. 노스 비주얼스 NOS VISUALS, 그리고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KAIST CT 이 협업한 작품 <딥 스페이스 뮤직 Deep Space Music>, 2019는 연주자 없이도 피아노 자체에 AI(인공지능) 자동연주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노랫의 맞춤 소프트웨어 NOS에 의해 창출되는 비주얼의 시각적 구조와 함께 관객을 압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즉각적인 개입은 시각적 이미지의 창작과정 자체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제시하며 청중이 소리와 영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섹션 4. ‘프로젝트 엑스’는 카이스트(KAIST) 문화기술대학원(박주용 교수)과 공동 기획한 관람객 맞춤형 전시로서 반성훈 작가가 함께한다. 그의 2019년도 작품 <물질의 단위>는 컴퓨터가 현실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을 키네틱 공간 캡처 시스템(Kinetic volumetric capture system)을 통해 표현한 작업으로, 관객이 카메라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는 본인의 신체를 새롭게 인지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과 협업해 2018년 제작한 석굴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프로젝트는 국보 24호 석굴암과 본존불상을 사용자가 무선 HMD(Head-Mounted Display)를 착용하여 마치 실제 석굴암에 들어간 듯한 사실적 체험을 제공한다. 이 몰입형 아트 전시 ‘어떻게 볼 것인가(WAYS OF SEEING)’는 11월 5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열린다.